

PET필름 이어 에탄올아민 덤핑판정

무역위, 일본산 PET필름에 예비판정 ... 미국·일본산 에탄올아민도

무역위원회는 4월25일 일본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과 미국, 말레이시아, 타이, 일본산 에탄올아민(Ethanolamine)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SKC를 비롯한 국내 3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 등에 투입되는 일본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3년 9월 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KPX그린케미칼은 반도체 세정액, 섬유 유연제 등에 사용되는 에탄올아민이 덤핑 수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3년 11월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본 조사를 거쳐 PET필름과 에탄올아민의 덤핑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냉동오징어 및 소나무 제재목 생산기업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당 칠레산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용자를 받거나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25>